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19.01.13(일)-19.02.02(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대학교는 일단 지하철(Sky train)과 가깝고, 버스 정류장 또한 앞에 있어 통학하기 편리합니다. 시설은 깨끗한 편이며, 학생들 또한 친절하고 대학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동계 수업은 저희 학교 학생들끼리 진행하며, 이번에는 15명 모두 분반 없이 한 반에서 들었습니다. 수업은 거의 자유롭게 2-4명 정도 조에서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가끔 조도 바꾸면서 서로 생각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친절하시고 혹시 못 알아듣거나 학생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천천히 들어 주시고 학생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업 준비는 거의 매일 숙제가 있는데, 간단하고 5분-10분 안에 끝날 만큼 어렵지 않아 부담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파일 형식의 책에 수업 자료를 챙겨 주고, 작은 노트도 주어 필기구 빼고 특별히 집에서 준비해 갈 것은 없습니다. 9시에 시작하여 수업은 3시에 마치고, 12시-1시 사이에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수업 1시간 후 잠시 쉬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1주일에 2번 정도는 오후에 학교 수업이 아닌 활동이 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벤쿠버 아쿠아리움, 박물관, 컬링 등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딱히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었습니다. 겨울에 실내는 더운 편이니 패딩 및 두꺼운 옷 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겹 입는 게 낫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매일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넣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춥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저도 우리나라보다는 더워 패딩은 조금 답답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겹 입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현지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되나, 차이나 타운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금방 해가 지는 편이니 저녁 먹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홈스테이 가정을 잘 만나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버스로 40분 정도의 거리이며, 환승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 가족은 한 명이었으나 다른 나라에서 온 룸메이트가 있어 같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홈스테이를 하신 분이었는데, 재밌고 한국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셔서 같이 요리도 하고 한국 영화도 봤습니다. 또, 항상 하루 일과를 물어보며 같이 얘기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말 중 하루는 홈스테이 가족과 놀러갔는데, 다양한 것을 배우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일주일에 2-3번은 식당에서, 나머지는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음식 값은 비싼 편이며 세금과 팁이 붙으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먹기엔 조금 안 맞는 편이며, 컵라면을 사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하며 제공된 식사는 입맛에 잘 맞아 주로 홈스테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40분 거리라서 집에서는 8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환승은 한 번 해야 하며, 구글맵 또는 transit 어플을 이용해 버스 시간표 및 환승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통은 편리한 편이며, 때로는 환승하는 곳이 멀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620,5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간식 포함)	350,000	
교통비	10,000	Zone2 이용
기념품 및 기타 비용	550,000	기념품 및 부탁 받은 선물 구매 현금 지출 포함
합계	91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슬리퍼, 드라이기, 거울, 빗 등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큰 타올 하나, 작은 타올 하나 두 개로 일주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건을 직접 쓸 만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금을 30만원 정도만 환전하였는데, 대부분 가게가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팁 계산은 카드가 훨씬 편리하니 현금을 적게 인출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카드 또한 수수료가 붙으니 수수료 부담이 싫으신 분들은 환전이 낫습니다.

쇼핑을 위해 Zone 2로 갔었는데, Zone 1을 제외한 다른 곳은 카드를 추가적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카드는 학교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다른 존에 가는 것보다는 Zone1에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곳은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옷은 얇은 것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낫습니다. 패딩 입고 땀 흘렸다가 거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비 때문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비는 매우 비싼 편이므로 상비약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보온병 또한 있는 것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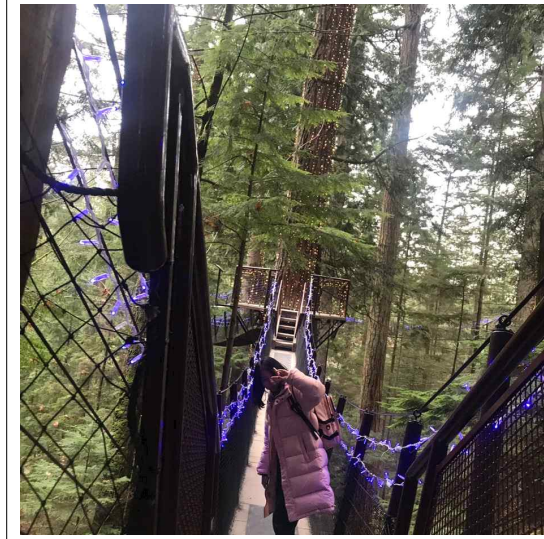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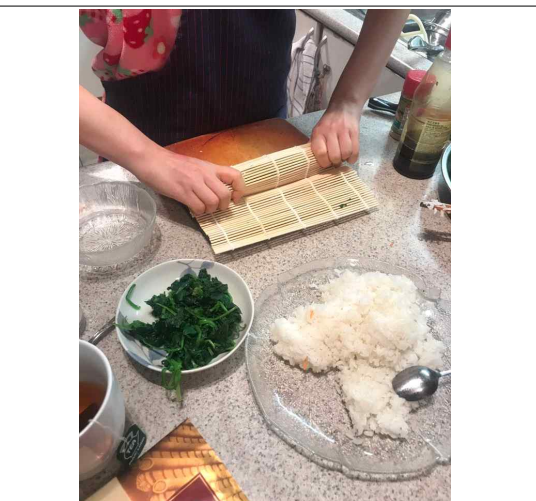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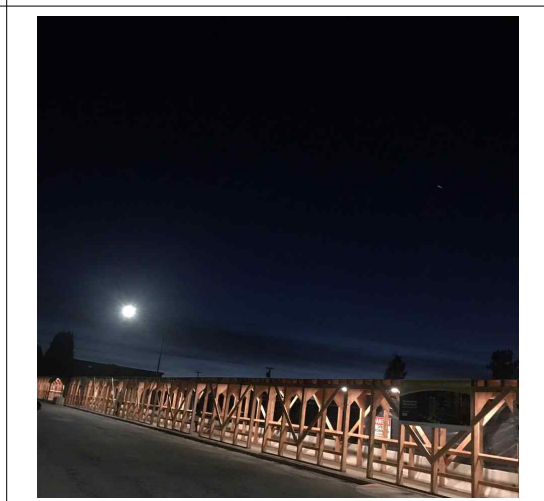
동계에는 순천향대학교만 단기 어학연수 파견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학생들을 별로 만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한국 학생들만 있어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홈스테이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

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3주가 너무 길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짧았으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파견 가 있는 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조금이나마 향상되었습니다. 토익 점수에만 집중하고, 학교 학점에만 집중하여 영어 공부를 했던 저에게 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토익 점수가 오른다고, 학교 영어 과목 학점이 잘 나온다고 끝이 난 게 아닌 배울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꼭 다시 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Gas town	Capilano Suspension Bridge
	
가족들이랑 김밥 만들기	Metrotown 맞은편



벤쿠버 아쿠아리움



Deep cove